



▶팔공산 남쪽 심장부에 자리잡은 동화사의 중심공간인 대웅전 영역. 대웅전 맞은편에 봉서루 좌우에 강생원과 심검당을 둔 모자 구조다.

# 팔공산 자락 봉황 알품는 형국 한겨울에 오동나무 꽃피운 절



## 팔공산 동화사

“  
큰 도회지 옆 '깊은 산속 절'

극달의상 장건·심지대사 중창

양명인 기운의 '금당선원'

보조·사명·성철스님 수행지

”

붉은 형성이 전국을 뒤흔들어 놓았던 지난 6월, 한국 팀의 월드컵 4강이 확정된 그때, 동화사로 향했습니다. 침으로 기어올라가도, 사람들은, 4강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신화'라는 비현실적 포장지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열광의 한 방법이겠지요. 사실, 기대 이상의 것이 너무 갑작스레 다가오고 보니, '이게 꿈이야 생사야'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는 일이 너무 피곤할 때, 혹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행복할 때, '꿈 같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현실을 꿈으로 돌려 놓고 현실을 돌리려는 것이든가 아니면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편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환상과도 같은 6월을 살았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드라마를 고쳐 쓰다 '신화'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그 신화는 벌써 '허망'한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시 부처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허깨비' 같은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에게 살 또한 허깨비 같은 것이니 이로써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회두 하나 행겨 봅니다. 오늘 하루를 땀 위에 두 발 올려 놓고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 현실인 한, '현실이라는 허깨비에 흔들리지 않고 현실을 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그날, 동화사로 가던 날, 추적추적 비가 내렸습니다.

팔공산, 신라 오악 중 하나입니다. 동악(東嶽) 토암산, 서악(西嶽) 계룡산, 남악(南嶽) 지리산, 북악(北嶽) 태백산, 그리고 중앙 팔공산 신라를 세계의 중심으로 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허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화사가 팔공산 남쪽 자락 봉황이 알 품는 형국에 여여부동한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없는 자리에 '금당선원(金堂禪院)'이 있습니다. 오동나무 텃밭 고갱이에 금당이 있는 것입니다. '비움(虛)'으로써 진여의 본체를 포착하는 '선(禪)'의 양명(陽明) 기운이 거기에 있습니다.

금당선원, 동화사 창건 이후, 신라 말의 영조(靈照) 선사 고려의 보조(普照) 국사 조선의 사명 대사 그리고 근세의 석우·성철 스님이 환희심 가득한 한 세월을 보낸 곳입니다.

혹 동화사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넓은 찾길에 있는 동화문 쪽보다는 봉황문 쪽으로 발길을 옮겨가십시오. 봉황문 앞 바위 부처님(보물 제243호)에서 어디로 가야 할 지를 알려 주실 것입니다. 아니, 바위에 새겨진 그 권안한 얼굴, 모든 본분을 다 넘어서 그 웃음만으로도 한 세상 일평생을 놓쳐 이겨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봉황은 오동나무에만 깃들고, 대나무 씨앗만 먹고 산다 했던가요 동화사 대웅전 뒤 댓바람 소리에 묻든 귀, 아직도 피랍습니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 팔공산의 으뜸 진제스님

#### 범부가 부처되는 길 있네

"범부가 부처되는 길이 있네"라는 은사 석우 스님의 한 말씀에 이끌려 불문에 든 진제 스님, 그때(1954년) 스님의 나이는 스물하나. 이후 태백산 동암, 남해 바닷가의 묘관음사, 오대산 상원사 선방을 두루거쳐 항곡 스님으로부터 전법계를 받는다(1967년).

1994년부터 동화사 금당선원의 조실을 맡아 남자들을 제집하신다. 올 10월, 부산 해운정사에서 열릴 '국제무차선화'를 위해 '범망이(佛)를 버리고 계신다'.



▶동화사 입구 마개불(보물 제243호). 구름 위에 올라앉은 자비로운 모습은 중생의 아픔이 있는 곳이면 어디로든 날아갈 듯하다.



## 포스코와 유니세프가 이 자리를 채웁니다

지금도 세상 어느 끝  
아이들이 뛰노는 자리에는 돌들 많은 실타래,  
찌그러진 강동, 바람빠진 낚은 공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모양이야 어떻든 그 자리는 바로 희망의 자리 -  
축구는 아이들을 또다른 세상과 만나게 해주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